



육 망

이 라 는
이 름 의

전 차

승대극회 제55회 가을정기공연

모시는 글



극회장 이명성 (기계92)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그것은 비단 날씨 탓만은 아니었다.
날씨보다 나를 더 뜨겁게 만들어주었던 것은
바로 무대 위 사람들의 열기였다.
언제나 그러하였지만 이번만은 더욱 그러하였다.
문득 질투가난다.
아니 그것은 질투가 아니라 부러움이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뜨거움을 함께 맛보시기 바랍니다.
불쾌지수도 없고 돈도 들지않는 순수한 뜨거움을 말입니다.

지난 두 달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할 일은 풍성하게 열린 열매를 수확하는 것 뿐입니다.

승대극회 제 55회 가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후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승실대학교 승대극회 동문회 일동

연출의 변



연출 이종희 (전기91)

누군가 내게 물었다. “넌, 꿈이 뭐니?”.

“꿈...”. 그래, 내 꿈이 뭐였더라?

순간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여야 할까?
정말 내 꿈이 뭐였는지 기억이 없다. 난 한번도 꿈을 가진 적이
없었을까?

아니다. 분명히 나도 한 떤 꿈이 있었다.

내가 소홀히 하는 순간에 꿈은 내께서 멀리 가버린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잡아야 할텐데...’

“잘 돼가?” 만나는 사람마다 묻는다. “그냥 그래.” 형식적인 물음
과 대답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의 연습은 형식적이지 않았다.

우리의 땀과 그리고 꿈이 여기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제즈발레 가르쳐주신 수정이 누나, 포스터 도와준 친구,
그 외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품이야기

1) 테네시 월리엄즈의 작품을 읽다보면 뭐가뭔지 알 수 없는 기분에 빠져들곤 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유리동물원 (The Glass Menagerie)”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반드시 문학에 문외한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극작가 또는 평론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월리엄즈의 극은 전체적으로 구조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월리엄즈의 극을 어떤 획일화된 잣대로 재려는데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월리엄즈의 극의 짜임새는 일반 작가들의 그것처럼 유기적으로 긴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 장면의 이미지를 강하게 제시하고 장면의 삽화성을 부각시키는 데서 이루어진다. 월리엄즈는 원래 회곡보다는 단편소설이나 시를 쓰는데 주력한 작가였고 따라서 그의 극은 상대적으로 구조가 허술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월리엄즈의 사실주의 경향역시 일반적인 사실주의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는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 반드시 꿈 또는 환상의 필터에 한 번 거른 다음 자신의 작품에 반영하였다. 월리엄즈극을 한 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자연주의적 인물과 시적인 세팅의 조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월리엄즈의 경향을 그 자신은 ‘Neo Plastic Theater’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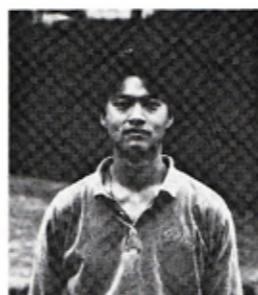
2) 테네시 월리엄즈에게 뉴욕 극비평가상과 플리처상을 동시에 안겨준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A Streetcar named Desire)’는 앞서 언급한 월리엄즈극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이 작품은 시나 단편소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구성 또한 치밀하다. 모든 대사와 장면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탠리 코왈스키의 첫 대사는 “어이, 스텔라 이거 받아.”라고 소리치며 피가 배인 고기뭉치를 던지는 것이다. 이는 스탠리의 동물적이고 야성적인 그만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블랑쉬 듀보아의 경우에는 초조한 모습으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와 묘지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극락정토에 도착했노라고 말한다. 전차의 이름은 강력한 상징성을 지닌다. (사실 전차의 이름이 ‘묘지’라는 것은 매우 희극적이다.) 블랑쉬의 인생과 말로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성인 듀보아는 영어식으로는 두보이즈가 되며 (DuBoys) 이는 그녀의 뒤틀린 성적욕구를 반영한다. 이 극의 전체 흐름은 블랑쉬의 위선적 행동과 이를 벗기려는 스탠리의 야성적 행동, 그리고 중간에서 번민하는 스텔라에 의해 진행된다. 그러나 블랑쉬의 위선이 파멸을 고하는 것은 한때 그녀를 사모했던 미치로부터 기인하게된다. 작품 전반에 걸쳐 블랑쉬는 호감을 살만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함부로 그녀에게 둘을 던지지 못함은 왜일까. 이 작품을 스탠리와 블랑쉬의 선과 악의 관계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3) 테네시 월리엄즈는 1911년 3월 26일 미시시피주 콜럼버스에서 토머스 래너어 월리엄즈 3세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한 때 번영했으나 테네시가 태어났을 시에는 몰락한 상태였다. 그가 7살 때인 1918년 그의 가족은 세인트루이스로 이주하였고 남부의 비교적 평안한 생활과는 달리 이후로는 안정된 삶을 누리지는 못하였다. 이 때의 생활이 그의 작품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1983년 엘리제라는 호텔에서 기도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블랑쉬가 파멸한 배경인 엘리제필드 -극락정토- 가 떠올려진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기획의 변



기획 조태희 (섬유92)

학교로 간다. 비가 내린다.

비를 맞는다. 다시 집으로 간다.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햇살이 눈부시다.

이런 제기랄.....

함께 해 주신 선배님, 후배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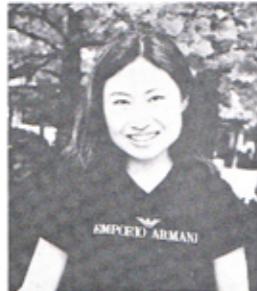
무대감독 남재우(전자90) 무대감독 정석용(경영90) 무대장치 양현준(법학90) 무대장치 현승옥(불문90)



무대미술 김상겸(전자91) 섭외 한석윤(기계91) 소품 김형근(국문92) 의상 류성환(건축93)



기획보 김한준(기계95) 음향 이정미(설유95) 조명 김명진(전전통96) 안무 박수정(국문83)



분장 서수경(정통94) 분장 임가영(물리94) 진행 송숙희(영문92) 진행 김은성(정통92)



도와주신분들

포스터 서병희
이근용
(주)다다실업 근무



캐스트.....



스탠리 코왈스키
11,771,554,004,210,400

조태희 (설유 92)



손미라 (사사93)

블랑쉬 듀보아
“죽음의 반대는 욕
망이예요.” / 이상
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정훈 (국문 96)

흑인여자, 간호사
스무 살의 여름, 나는
무대에서 바다를
보았다.



홍성원 (경영 96)

스티브 하블
“명 연기란 모든
앎으로부터 해방
되어한다.”

(어느 선배님의 말)



박지희 (정외 95)

스텔라 코왈스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윤제 (기계 96)

파브로 곤자레스
나도 누군가를 사랑
하고 싶다. (H'H')



서정우 (컴퓨터 96)

해롤드 미치
'미치'니까 미치겠다.



이경희 (컴퓨터 96)

유우니스 하블
96년 늦은 봄날 생
활의 자유를 얻었
다. 그리고 초가
을... 이제 무대 안
에서의 자유를
꿈꾼다.



박영신 (국문 96)

멕시코여자
등줄을 따라 흐르는 땀
에서 바닷물 냄새가난다.
짭짤한 그 짜릿한
시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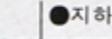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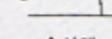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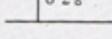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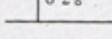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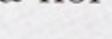


채종석 (기계 96)

젊은 남자, 의사
비 맞아 죽어
봤으면.....

공연일지

7월 2일	작품제작 첫 리딩 세 시간이나되는 경이 벌써 끝나버리는데. 캐스팅 출장으로 면식한 국희는 2차는 병원에서. 새내기는 전부 패밀리 고경재. 이 날부터 우리의 인사말은 '어제 치에 차운 들여놓나?'가 된다.
8월 5일	대본석 시자. 태네시 윌리엄즈가 미워진다.
7월 17일	제이저 국희는 쉬는 날을 지킵니다.
8월 18일	자료작가 이민서. 계모인 정실이 노끼 날 캐슬을 강점하자!!
7월 21일	자매분식은 이도에도 모자라... 여친님께 떠난다.
7월 23일	수정언니 (8)학년)에게 제작할려 배우기 시작. 시작할때 다 웃었지...
7월 25일	수정언니는 빼가 얹은게 반향에 캐슬을 마을 정원에서. 모든 이영자.
7월 27일	신나는 미개화회 (M.I.T) 비행대에 마구개진 모자지마. 강촌에서 서로의 애정을 확인. 미끄러지잖아 추억탕해여
7월 29일	2. 자작계단2. 시백 까지 술먹고. 영신이의 가문. 저희언니의 꽁짜집. 봄이들은 기억나지 않는지마...
8월 1일	대본기로 한 날 업데이트 왔었는가? 악을 맞지 않고 풍만해...
8월 3일	김시언니. 진석와빠 오신 날. 외래만에 맛있는 병과 시원한 매력을 3차까지 선배님들 자주 오세요.
8월 5일	무대와의 교감은 약 5년째 성연의 대사 '여기다, 이 X이!'는 무대를 오른다로 마친다.
8월 7일	제작으로 학교방을 날 연극은 혼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확인했다. 언니는 최상용. 성연이는 오늘도 '비드와 이제가 좋지?'라는 대사로 무대를 찾았다. 이번 작품이 코미디인줄은 작가도 몰랐으게?
8월 9일	포토장면. 정오의 엉덩이를 테이블에 올리는 씨. 엉덩이에 꾸려 스텐리가 사라졌다. 정오야. 제발 엉덩이를 찾아라. 대학로에서 엉덩이를 찾으려면 나. 무대위의 엉덩이를 너도 달라보인다. 오빠, 사이 20장만 해 주세요. 민성은 사이아랑 바깥쪽에 '비어腔'을 벌리 밤문화 어떤게 되겠?
8월 10일	상행선정. 짐승언니. 무대위에서 자신의식을 버려라. 아자들만 반성하는데 남자소리가난다. 대표경 탄생
8월 12일	팀플레이 시작할때 예전에 나와야하는데 X호 와 '언제보다 티파하게 나았을까?' 연상언마의 조언을 듣는 대 사 세운마디 이하의 조언을 짜증 친척한 듯
8월 14일	두려운 제작여행을 즐히오빠. 일부터 오가게 아신거죠?
8월 16일	더다더위. 기우제라도 지낼까? 김시언니와 '메리리듬에 빠져지마라.'
8월 18일	엔스으르테리의 독립은 언제?
8월 20일	술. 라면의 지개와지기 시작한다. 공연 끝나면 XX당면은 절대 야마는다!!
8월 22일	까악 어느새 20주. 날 아직도 서둘려.
8월 23일	단 읊개기. 역시 정우가 제일 애정인 어마! 귀하오빠 왔셨다. 넘 보고 싶던 귀하오빠 방방방가.
8월 25일	제작여행에서 아로바이트. 제발 제 거울 밟아가세요. 역시 예전 X언니가 제일 빨리 떨어졌다. 우우우
8월 27일	도디어 무대세팅. 뚜딱뚝딱 오싹오싹. 와지끈 우르르~~~ 망했다.
8월 29일	심계명은 어제고 일어나도 연습가 셋팅. 그려온 안식일은 하지마 힘을 내자. 시원한 맥걸리가 있으니까!
8월 30일	무대를 고친데. 잉잉 잉. 그건 내가 만든거데.
8월 31일	종명의 뜨개운 열기에 놓아버린 나에게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께버리겠네에 께버리겠네에~~~
9월 1일	포스터를 네이자. 한잔마다 제발 청태이야즘 빨리 뜯어오. 금새서 정말~~~
9월 2일	개강. 하지만 강강자. 리어설시자. 난 왜자꾸 틀리지?
9월 3일	그리운 술. 쪽화티아. 기다려라!
9월 4일	내일 도디어 공연이다를 믿은 일찌가서 특 자야징~

크피드 (Cupid Restaurant)  승실대 Tel. (02) 812-436	정문앞 학생식당 자매분식  승실대 전화 (02) 815-9342	연래춘 정통중국요리 전문  승실대 TEL (02) 812-9108
STYLIST  학교앞 세밀 눈에 띠이는 곳 전화 (02) 812-0197	전공필수 <i>Hof and Pub</i>  (02) 821-8150 승실대학교 정문앞	Newly Designed 우리자리 RES & HOF  (02) 816-4371
호프 & 소주방 옛친구 식사와 디저트 정문앞 143번 종점 옆 (02) 814-4280	따봉분식  맛있는 김밥 엄마손 김밥 땅 만두 (02) 822-1642	
청운식당  승실대 (02) 816-1001	B.R.E.A.K <i>pub & hof</i>  학교앞 골목안 (02) 823-0814	Jaco

당신이 날 믿어준다면

작곡·편곡: 이 충희 노래: 손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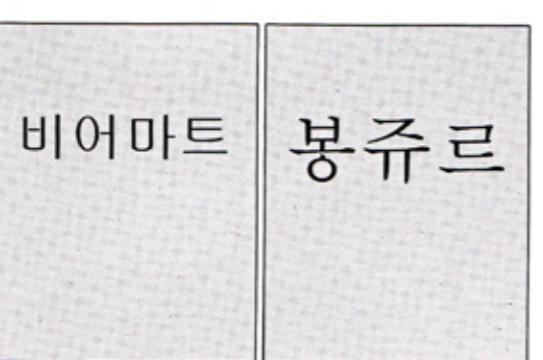
하늘색 물나라에 서 친구를 잡아왔다 네
관지로 천 바다위 들 항해하는 증이길에 불과해 도
당신이 날 믿어준다 면 그건 거짓 아니랍니 다
세상이 바늘별리 서커스처럼 터앉아 영허리 라 듯
당신이 날 믿어 준다 면 그건 거짓 아니 랍니 다
당신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술집의 허식
당신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장터의 음악
당신이 날 믿어 준다 면 그건 거짓아니 랍니 다.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21년 6.13	연홍회소연극 "절세영웅 나풀레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탐"		
2	1923년 7.7, 21	전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제인간" 염영창년회 주관		
3	1923년 7.28, 29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4	1965년 11.	"제공으로 돌아오다" 황영식作	이 반	전진호
5	1968년 10.28	"Out Town" by Thom Wilder		이태주
6	1969년 10.10	"외자들" 이오네스코作		이태주
7	1969년 10.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8	1970년 5.15	"聖者の 성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9	1970년 10.28, 29	"승부의 終末" 사무엘 베케트作		김양기
10	1971년 5.26, 27, 28, 31 6.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날목 살화" 윤조병作 "담배해독에 對하여" 안보 채홍作 "황금단지" (로마극) 푸라우더스作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作	정종화 주정서 한영재 유근배 차현재	
11	1971년 11.4, 5, 11	"제각쟁의 그림자" 산 오케이시作		차현재
12	1972년 5.21, 22, 23	"생일파티" H.판더작		한영재
13	1973년 15.21, 22, 23	"미시시피의 결혼" F.위렌버트作		고보인
14	1973년 10.25, 26, 27	"광" H.판더작 "기도" (소극장) F.아라벨작	김득남	차현재
15	1974년 5. 25, 28, 30	"성의 사람들" (전5막) A.끼비작		정종화
16	1975년 6.9, 10, 12, 13	"싸움터의 산책" 김홍수 "도스또에프스카라는 이름의 거북이"		안홍순
17	1975년 10.29, 30, 31	"비디만과 방학방" Max Fish作	김기열	안홍순
18	1976년 6.1, 2, 3	"인터뷰" 장 플로드 판 이탈리작	김기남	김득남
19	1976년 10.25, 26, 27, 28	"법" 장 플로드 판 이탈리작		김영덕
20	1977년 6.15, 16, 17, 18	"EQUUS" 피터 웨터作	백정식	김영덕
21	1977년 10.10, 11, 12, 13	"EQUUS" 피터 웨터作	방영철	김영덕
22	1978년 6.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作	방영철	김영덕
23	1978년 10.24	"EQUUS" (대학연극 연극제 참가) 피터 웨터作	민승기	김영덕
24	1979년 6.18, 19	"한강 2979" 김영덕作	정재호	이병국
25	1979년 9.29, 10.2	"초분" 오태석作	이성일	황정순
26	1994년 5.26, 27, 28	"굿닥터" 날 사이먼 작	정석웅	소장호
27	1994년 9.29, 30, 10.1	"안티고네" 소포클레스作	소장호	박원상
28	1995년 3.7, 8, 9	"자살" 김현목 作	한석윤	손미라
29	1995년 10.12, 13, 14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JM 버스본풀체스 作	김은성	남재우
30	1996년 5.25, 26, 27	"상자속의 여자" 김윤미 作	현승우	류성환

◀ 신 · 입 · 생 · 활 · 영 · 공 · 연 · 보 ▶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10, 11, 12	"악마와 품" W. Aning 作		김홍수
2	1976년 10.29, 30, 31	"보식과 여인" 이강백 作		김득남
3	1977년 3.16, 17, 18	"출발" 윤대성 作	천경호	안홍순
4	1979년 3.29, 30	"꽃" 이강백 作	한철	정재호
5	1981년 3.30, 31	"ARIA DA CAPO" E.St. V. Millay 作	이영환	오세환
6	1982년 3.24, 25	"입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학 作	최시영	이용섭
7	1983년 4.16	"블랙코데리" 피터 웨퍼 作	전희식	홍여식
8	1984년 3.8, 9	"개인의 소공간" N.Holand 作	차세훈	김인보
9	1985년 7.20	"ARIA DA CAPO" E.St. V. Millay 作	이영민	화승민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0	1986년 3.17, 18, 19	"인형의 집" 헨리 입센 作	이길영	김정운 워성신
11	1987년 3.12, 13, 14	"더러운 손" J.P. 샤크트로 作	백윤현	박경근
12	1988년 3.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 作	천승범	황금실
13	1989년 3.23, 24, 25	"혹인수녀를 위한 진혼곡" A.Camus 作	홍덕태	박경근
14	1990년 3.8, 9, 10	"우울증 환자" Botoh Strau-β	이영민 안상준	박해숙 백로라
15	1991년 3.7, 8, 9	"노크노크" 줄스파이퍼 作	정현용	이범준
16	1992년 5.28, 29, 30	"꿈먹고 물마시고" 이근삼 作	김상겸	양현준
17	1993년 3.11, 12, 13	"메두사" Georg Kaiser 作	소장호	박원상
18	1994년 3.10, 11, 12	"어린왕자" 생텍쥐페리 作	이명성	홍석환
19	1995년 3.9, 10, 11	"봄날" 이강백 作	양명호	정식웅
20	1996년 5.30, 31~6.1	"울어라 벳고동아" 성준기 作	정제훈	김형근



승
대
극
회



원작: 테네시 월리 암즈

기획: 조태희

연출: 이충희

일시: 96년 9월 5일 14시, 18시

6일 14시, 18시

7일 13시, 17시

장소: 숭실대학교 대학극장(제1공학관 3층)

주최: 숭실대학교 승대극회